



1, 2부 예배 SERVICES

인도: 1부 이상재 목사(Rev. Sangjae Lee)
 2부 신기성 전도사(Pastor Kiseong Shin)

- **입례찬송** 15장
 Opening Hymn 하나님의 크신 사랑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 **찬송** 407장
 Hymn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Dying with Jesus

3부 예배 SERVICE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4, 5부 예배 SERVICES

4부 영어예배

설교 Pastor John Yang
 Sermon Hebrews 4:14-5:10
 "Worldview:
 Christ, Our High Priest"

5부 예배

설교 신기성 전도사
 Sermon Pastor Kiseong Shin
 사 40:1-11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기도
 Prayer

1부 임봉선 장로
 2부 최형무 장로
 3부 정상아 집사

찬양
 Anthem

'자유와 평화의 주빌리' by Anonymous 1,2,3부 찬양대
 ———— 환영 인사 및 광고 ————
 Welcome & Announcement

- **영광송 & 봉헌**
 Doxology & Offering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Mark) 8:31-38
 (창17:1-17, 15-16; 시22:23-31; 롬4:13-25)

설교
 Sermon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Take Up Cross and Follow Me

김정호 목사
 Rev. Chongho Kim

- **결단 찬송**
 Hymn of Response

205장
 십자가 군병들아
 Stand Up, Stand Up, For Jesus

- **축도**
 Benediction

● 표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at the mark

01. 안내 Welcome to FUMC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교회 안내와 교제의 시간이 새가족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 생방송 예배: <https://www.fumc.net/live>

02. 볼리비아 단기선교 안내

이번 여름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볼리비아 아동 결연을 맺는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고 현지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펼칠 것입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목회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4년 8월 19일(월)~23일(금) *대상: EM, 중고등부, 청년부 및 성인

*신청 마감: 2024년 3월 24일 *문의: 목회실

03. 미주 기아대책(KAFHI)주관 빈곤 아동 결연

볼리비아 도시 빈민 아이들과 후원자 결연 맺기에 현재 50명 동참하였습니다. 금년에 100명을 목표로 결연 맺기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4. 2024년 사순절 부활절 예배 안내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3월 25일(월)~30일(토) 06:00am

*부활주일예배: 3월 31일(주일) - 1~5부 예배(세례·입교식 3부)

*사순절 온라인 묵상영상: 사순절 기간 묵상을 위한 1분 영상을 매일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목회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5. 부활주일 세례·입교자 교육 안내

*일시: 3월 10일, 17일, 24일 3부 예배 후 - 3주간 *장소: 컨퍼런스 룸

*대상: 영아~성인 등록교인 중 세례 및 입교 받지 않은 이

*신청: 3월 3일(주일)까지 목회실 또는 심데이빗 장로

06. 목회협조위원회 모임

*일시: 3월 1일(금) 07:00 pm *장소: 2층 컨퍼런스룸

07. 중보기도센터 운영 안내

*운영시간: 매주 (월)~(금) 새벽기도 후

*장소: 1층 새가족실

*중보기도 신청함은 1층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08. 복지위원 교육 안내

*교육내용: 메디케어, 메디케어, 은퇴연금 SSA, 빈곤자 지원 SSI, 노인아파트 등 다양한 복지내용

*교육대상: 교육 내용에 관심있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기 원하는 분들

*1차 교육 일시: 3/2(토) 오후 6시, KCS(203-05 32nd Ave, Bayside)

*2차 교육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09. 주차장 이용 안내

주일예배시 차량이용 증가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새가족 및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가나안 주차장과 월드 주차장을 먼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측 지도 참조)

10. 예배 준비 캠페인

1) 교회에 올 때에 도난방지과 안전을 고려해 고가의 귀중품 가져 오지 않기

2) 겨울철 눈길, 빙판길, 젖은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하기

3) 예배시작 10분 전에 오기, 예배시작 전에 휴대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하기

11. 신앙의 BASICS 캠페인

1) 새벽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참석하기

2) 속회, QT모임, 믿음의 친구들 참석하기

3) 소그룹리더교육, QT리더 ZOOM미팅 참석하기

4) 대표기도, 헌금위원, 수요간증 등 교회 사역 적극 참여하기

5) 성경일독표 따라 성경읽기, 성경퀴즈 참여하기

예배안내 Upcoming Worship Services

<수요예배 안내> Wednesday Service

수요예배는 성도님들의 QT나눔 및 신앙생활 간증과 함께합니다.

* 2월 21일 간증자: 김경숙 장로 * 설교: 김정호 목사

* 수요일 저녁: 8시 / 생방송 <https://www.fumc.net/live>

날짜	2월 28일	3월 6일	3월 13일
간증자	김경숙 장로	이근수 장로	윤관호 장로

<Q.T 리더 ZOOM미팅> Q.T Leaders Zoom Meeting

* 리더: 담임목사 * 교재: 기쁨의 언덕으로 * 매주(화) 08:00pm

* 대상: 모든 소그룹 리더(교구장, 속장, 부속장, QT리더) 및 위원장, 임원, 사역자

<새벽기도회 안내> Early Morning Service

큐티 교재 (기쁨의 언덕으로) 사용 / 새벽 6시 (월~토)

*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umc.net/web/live>

<설교 안내>

3/3 예수의 분노	요한복음 2:13-22 (출20:1-17; 시19편; 고전1:18-25)
3/10 믿는 자마다 영생	요한복음 3:14-21 (민21:4-9; 시107:1-3, 17-22; 엡2:1-10)
3/17 예수의 영광	요한복음 12:20-33 (렘31:31-34; 시119:9-16; 히5:5-10)
3/24 나귀타신 예수	마가복음 11:1-11 (시118:1-2, 19-29)
3/31 죽음을 이긴 예수	요한복음 20:1-18 (사25:6-9; 시118:1-2, 14-24; 행10:34-43)

<주일예배 대표기도 및 헌금 담당> Sunday Service prayer

날짜	1부 기도	2부 기도	3부 기도
2/25	임봉선 장로	양정임 권사	정상아 집사
3/3	이한수 장로	강효영 권사	이상춘 장로
3/10	윤관호 장로	양정임 권사	김진수 권사

헌금위원	연영숙 권사	송정희 권사	곽혜미 집사
------	--------	--------	--------



● 가나안 주차장
Roosevelt Ave. 선상
144가와 147가 사이

● 실드 주차장
38th Ave. 선상
Parsons Blvd.와 147가 사이

모임안내 MEETINGS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예배시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 (영어)	1:00 pm	소예배실
::5부	2:30 pm	소예배실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Small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 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 온라인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 미만) 11 am
유아부(만3세 미만) 11 am
유치부(만3-4세) 11 am
유초등(K-5) 11 am

청소년 YOUTH (Vision Center)
중등부(6-8) 11 am
고등부(9-12) 11 a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제일유아원 10 am (T-F)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휴교합니다.)

섬김의 사역자 학교

주 일 1pm / 1:30pm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87.7 (엡 FM87.7)

주일 9 a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9 pm
cbsn (www.cbsnewyork.net)
-9 am / 7 pm

우리 가족이 교회에 가는 이유

담임목사 김정호

지난 2/23일자 보스톤대학 WBUR에 "Why our family still makes time for church on Sundays"(왜 우리 가족은 주일이면 아직도 교회 갈 시간을 만드는가)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4천만 명이 교회 가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받는 상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한 집단 따돌림, 목회자들에게 당하는 영적 혹은 성적 착취, 그리고 인종차별을 포함한 각각각색의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25%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75%, 3천만 명은 그냥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일에 교회 안 가는 것이 편해져 버린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생일파티, 아이들 축구 경기 데려다 주는 일은 물론 그냥 사는 일로 바쁘다가 서서히 교회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가족은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을 의도적 그리고 의지적으로 낸다고 합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한 시간 거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15살 난 아들에게 왜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지 물었다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기숙사 생활로 한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다가 어느 주일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운증후군(Down Syndrome)이 있는 누나가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내 동생이 오늘 예배 함께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행복 가득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세 많은 어른들이 자기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고 공부 잘하는지 물어봐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다운증후군이 있으니 학교에서는 물론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데 교회에 가면 환영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 누나에게 성경 봉독을 시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주일에 성경 봉독하는 것을 인생 가장 거룩한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누나가 사랑하는 교회이기에 주일이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자기에게 대단히 잘 기획된 예배나 찬양, 수준 높은 프로그램 그런 것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못나고 부족한 그리고 망가지고 무너진 개인과 가정이지만 주일이면 서로 반가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주일이면 교회에 온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런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설교를 해주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얼마를 벌고 얼마나 잘나야 하고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교회는 아직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곳이기에 온 가족이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꼭 40여 년 전(1984년) 한국 기독교 100년을 맞아 시카고 북일리노이연회에서 저에게 한 달에 한 번 미국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하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시골 작은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제목 나누는 시간'에 주로 아픈 사람들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운증후군이 있는 청년이 일어나 뭐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열심히 듣고 웃어주고 박수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가대는 3-4명 노인들인데 'There is a balm in Gilead'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잘 부른 것은 몰라도 신앙고백이 담긴 정성스런 찬양에 은혜 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설교 사례비는 한 시간 거리를 가건 두 시간 걸리는 교회를 가건 미국 교회 어디나 \$25이었습니다. 가스비도 되지 않는 설교 사례를 받았지만 지금도 1년 동안 미국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학교가 사양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목사 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엇그제 읽은 주일이면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를 우선순위로 삼는 가정의 간증에서 교회가 살길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가요? 뭘 대단히 잘해서 부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늘 긴장하는 것은 아닌지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쉽게 하지 않는지요? 남의 어려움과 잘못을 품어내는데 인색하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던 '지극히 작은 자'를 환영하고 있는지요? 이런 교회가 되려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 노릇 그만하고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축제가 있는 아버지 마음을 가진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